

## 제74회 국가 기도의 날, “하나님 중심의 영성 회복하자”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제74회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1일,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에 모인 한인들은 회개와 미국 지도자들의 성경적 리더십 회복과 세계 선교와 조국과 차세대를 위해 합심해 기도의 두 손을 모았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개인과 미국이 범하는 죄를 회개하고 대통령과 미 연방 정부, 캘리포니아 주의 회와 각 시의회를 위해 기도했다.

또 미국의 성경적 교육 회복, 부모의 각성과 가정의 회복, 청교도 신앙의 회복을 위해,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 조국과 차세대,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국윤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가 ‘이제라도 중심을 잡자’(삼상 7:3-12)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성근 목사는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님 기도에는 힘이 있다. 가정과 국가



제74회 국가기도의날 기도회(National Day of Prayer)가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5월1일(목) 오후 7시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에서 열렸다. ©기독일보

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뒤집는 힘은 기도이다”며 “우리가 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어 기울 어진 나라를 일으켜 주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모든 것이 기울어져 있다. 경제적으로는 온 세계가

침체와 혼란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민자들을 축출하고 인종차별과 마약, 도박이 난무하다. 또 동성애가 점령군처럼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미국 전체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들이다. 영적으로는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종교적 차원으

로는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는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통합 사상 뒤에는 기독교 말살 정책이 들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기울어진 현실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결국 패망하게 된다”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영성을 회복하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2부 기도회는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원로),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김태형 목사(ANC온누리교회), 이수호 목사(올림픽장로교회), 한현종 목사(크랜서장로교회), 허창도 목사(기쁜우리교회 부목사), 안현숙 목사(CBS 중보기도팀 대표), 신용환 목사(주님세운교회), 김재권 장로(미주성시화 이사장), 진건호 목사(하늘교회), 현민정 목사(은혜한인교회 부목사), 양영모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부목사), 김상현 목사(남가주주안에교회), 김철민 장로(CMF 선교원), 한철수 장로(남가주장로성가단 단장)이 기도를 인도했다.

토마스 맹 기자

## KPCA, 부총회장에 증경총회장 김종훈 목사 선출

사전 등록자 없어 총회서 추천

해외한인장로회(KPCA)가 7일 서울 연동교회(담임 김주용 목사)에서 대의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총회를 갖고 신임 목사부총회장으로 증경총회장인 김종훈 목사를 이례적으로 선출했다.

KPCA는 큰 문제가 없는 한 그해 목사부총회장을 다음 회기 총회장으로 추대한다. 따라서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사실상 차기 총회장 선거와 다름 없다. 그런데 이번 총회를 앞두고 실시한 후보 접수에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9회 총회가 7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대의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김진영 기자

이에 총회 현장에서 추천을 받았 것이다. 증경총회장단 측은 김 목사고, 증경총회장단이 이미 총회장을 역임한 김종훈 목사를 단수 추천한

교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기 위해 경험이 있는 증경총회장님 중에 현재 시무하고 있는 분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단수 추천한 것은 김 목사가 증경총회장으로서 교단의 주요 지도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자 “교단 법에 따라 후보를 복수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총대들이 “만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총회의 희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분을 뽑는 것인데 너무 시급하게 추천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영 기자 → 4면에서 계속

## 미주기독일보



CDTV

TV기독일보 주간뉴스



## 태양광, 솔라!!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감세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 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법·전화상담 예약

www.marhaw.com 213.820.3704

# 창립기념

부흥  
성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요한복음 11:40)



유재명 목사

2025. 5.15(목) ~ 18(주일)

15(목) 7:30pm / 16(금) 5:15am, 7:30pm / 17(토) 6:00am, 7:30pm

18(주일) 1부 7:20am, 대예배 11:00am

장사 : 유재명 목사(안산빛나교회)

장소 :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43rd  
YEARS  
ANNIVERSARY

주일 | 1부 7:20am, 2부 9:10am, 3부 11:20am, 4부 2:00pm | 금요성경집회 7:30pm | 새벽예배(일천번제) 월~금 5:30am, 토 6:00am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TEL: 714.446.1000 | www.gracemi.com



## 사고

**본문이 살아나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6/9,10일로 변경**

5월 26일~17일로 예정되었던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가 6월 9일~10일(월, 화)로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큰나무교회 담임이며,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인 김귀보 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성경 본문이 살아 움직이는 설교, 듣는 이의 마음을 여는 설교, 말씀이 '들리는' 순간을 함께 경험하길 바라는 목회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미나 등록은 QR코드로 할 수 있습니다.

일시: 6월 9일(월)~10일(화)

오전 9:00~오후 4시

장소: 토렌스제일 장로교회

등록비: 무료(교재, 점심 제공)

등록: QR 코드 스캔 후 등록

문의: 213-739-0403

# 여러분 가정의 특별한 예배 이야기 들려 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예배 문화 확산 위해

가정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을까? 그 특별한 이야기를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주관으로 '우리 집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이 5월 1일(목)부터 6월 6(금)까지 남가주 지역 한인 가정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은 물론, 조부모가 함께하는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자녀를 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참여할 수 있다.

가정예배 소개서, 영상,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소개서는 ▲정기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 ▲우리 가정만의 특별한 예배 방



제목 ▲ 영상에 대한 설명 ▲사진에 대한 설명 등을 담아, Letter 사이즈 3~6매 분량으로 작성하면 된다.

전했다.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은 "가정예배를 통해 개인과 정이 회복되면,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와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공모작 접수는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 또는 월드미션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당선작은 6월 13일(금), 미주복음방송과 월드미션대학교를 통해 공지된다.

수상자에게는 총 \$5,000 상금이 수여되며, 6월 26일(목)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열리는 시상식을 통해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1가정): \$1,000 ▲최우수상(2가정): 각 \$500 ▲우수상(3가정): 각 \$400 ▲장려상(6가정): 각 \$300

공모전 안내

1.기간: 5월 1일(목)~ 6월 6일(금)

2.접수방법: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www.kgbc.com](http://www.kgbc.com)) 또는 월드미션대학교 홈페이지([kr.wmu.edu](http://kr.wmu.edu))

3.문의: (714) 484-1190

이윤준 기자

상의 내용  
가정예배의 삶을 담아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  
설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배 형태를 소개  
가정예배를 통한 신앙의 힘써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소개

2025년 5월 1일(목) ~ 6월 6일(금)까지

온라인 접수

# “The Holy One”, 예수는 하늘 문을 여는 유일한 길

러빙워십 주관, 허준호 집사  
새롭게 하소서 팀 출연

지난 2일~4일(금~주일) 새롭게 하소서 팀과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이 남가주 교회들의 연합과 다음 세대를 위해 뭉쳤다.

러빙워십이 주관하고 <새롭게 하소서> 팀과 배우 허준호 집사가 함께한 ‘더 훌리 원’(The Holy One) 콘서트가 남가주 교회 세 곳에서 진행됐다.

첫째 날 감사한인교회, 둘째 날 나성영락교회, 마지막 날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곡 <겟세마네>를 깊은 표현력과 가창력으로 소화해낸 허준호 집사를 비롯해, 현대적 편곡과 열정적 기타 연주로 무대를 풍성하게 이끈 싱어송 라이터 조범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재치 있는 입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아내는 MC 주영훈 등이 무대에 올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충현선교교회 본당이 가득 찬 가운데, 조범진의 ‘목마른 사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시작으로, 새롭게 하소서의 MC 주영훈이 아버지의 오랜 투병 생활을 겪으며 그의 간증을 담아 쓴 곡 ‘거기 있었다’를 조범진과 함께 불렀다.

다음으로 찬양사역자 여니엘, <



러빙워십이 주관하고 <새롭게 하소서> 팀과 배우 허준호 집사가 함께 한 ‘더 훌리 원’(The Holy One) 콘서트가 남가주 교회 세 곳에서 진행됐다. ©기독일보

주님의 하실 수 있네), <예수, 예수>를 불렀고, 로마서 10장 13-15절을 나래 이션으로 전하며, 교회를 가로질러 무대에 등장한 허준호 집사는 그는 윤복희 권사에게서 받은 곡이라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겟세마네>를 긴 호흡과 폭발력 넘치는 목소리로 부르며, 무대를 장악했다.

“저는 교통사고로 하나님을 봤다. 저는 불신자였고 사고가 났던 순간 부적이 몸 곳곳에, 제 차에도 있었다. 하나님을 뵙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제 주변에 크리스천은 윤복희 권사님 밖에 없어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저에게 이 곡을 주셨다.” 허준호 집사의 무대에 이어, 러빙워십의 조셉 리 목사가 이번 콘서트에 담긴 의미를 나누며, “누가 훌리 원, 거룩한 자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러빙워십과 새롭게 하소서 팀이 <살아계신 주>, <실로암> 등을 열창한 후, 국윤권 목사의 메시지와 축도로 모든 콘서트의 순서가 마무리됐다.

국윤권 목사는,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분열을 겪고, 그 가운데 젊은



왼쪽부터 찬양 사역자 여니엘, 싱어송 라이터 조범진, 주영훈. ©기독일보

## 5월 창립 부흥성회 및 찬양 집회

5월 다양한 집회 및 가정을 위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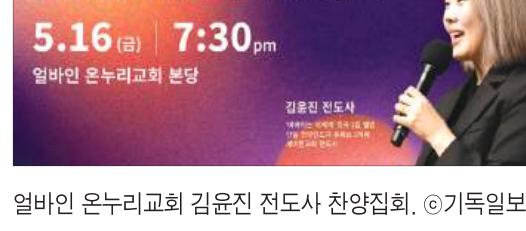
창립 43주년을 맞은 은혜한인교회는 5월 15일~18일(목~주일) 유재명 목사(안산빛나교회)를 초청해 “네

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연다.

5월 18일(주일) 3부 예배에서 창립 43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드린다.

나성영락교회는 18일(주일) 3부 예배 때 우미쉘 목사가 청년부 예배를 인도한다.

동양선교교회 11일 어버이 주일 오후 1시 15분에 본당에서 김규연 전문의(전 세브란스 병원 국제 진로소 교수 역임)를 강사로 치매 예방에 관한 특강을 열



アルバイン 온누리교회 김윤진 전도사 찬양집회. ©기독일보

며, 23일(금) 오후 4시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가족을 기억하며 드리는, 유가족 위로 예배를 드린다.

アルバイン 온누리교회는 16일(금)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김윤진 전도사 찬양집회를 연다.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는 18일(주일) 오후 6시 30분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제2회 연합 선교음악회를 갖는다. 수익금은 아이티 빈티트루드니프의 소망학교 건축기금으로 전달된다. 김민선 기자

## 장애, 비장애 하나 되는 ‘사랑의 마당 축제’

5월 17일(토) 10시~2시  
부에나파크 미들 스쿨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 축제’가 오는 5월 17일(토) ‘부에나파크 미들스쿨’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1회를 맞은 사랑의 마당 축제는 매년 5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남가주에서 장애사역을 담당하는 교회/단체들이 연합하여 치르는 행사로 발달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랑과 화합의 축제이다.

장애사역 교회와 단체들의 사역 홍보, 협력, 교류를 위해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공연, 경품추첨, 댄스파티 등 신나는 놀이가 제공된다.

올해는 ANC온누리교회와 해피밸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풀무원, 남가주밀알선교단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가 17일(토) 부에나파크미들 스쿨에서 개최된다.

서 공동주관하고, GBC미주복음 방송과 카라반 캐노피, 한미은행, OC한인라이온스클럽, 로열 비지니스 뱅크에서 특별후원한다.

남가주 20개의 교회 장애부서와 15개의 장애인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6/9(월)~10(화) 오전 9:00~오후 4시

장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ext Encountering Preaching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을 위한 설교학”

1. 왜 내러티브 설교여야 하는가?
2.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이해
3. 내러티브 설교 작성을 위한 준비
4.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1
5. 내러티브 설교를 위한 구성
6.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2
7. 내러티브 설교 작성 실습

강사: 김귀보 목사

큰나무 교회 담임목사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목회학 박사 과정중  
장로회 신학 대학교 신대원(M-div)  
[저서]  
거침 없는 인도하심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  
슬로. 바이블(공저)



등록: QR 코드 스캔 후 등록

등록비: 무료(교재, 점심 제공)

주관/문의: 기독일보

(213-739-0403, 213-434-1170)



## 숙제 안고 막내린 미주 종회, “발전특위 구성”

이민자 급감 등 3년간 연구 새 총회장 김종호 목사 선출 목사 부총회장 안충기 목사 정인충 장로도 부총회장에 총무는 김시온 목사가 재선

미주성결교회는 지난 4월 22일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 선출과 교단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등 미래 발전을 위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하와이 종회는 대의원 119명을 포함해 총 279명이 참석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임원선거에서는 부총회장 김종호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추대형식으로 선임됐다. 김 신임 총회장은 “세대와 지역을 넘어, 목회자와 성도, 교회와 지방회가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종 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면서 “하나됨을 통해 진정한 전진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목사 부총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안충기 목사가 투표 없이 당선이 공포되었고, 서기에는 김종민 목사(애틀랜타교회), 부서기에는



미주 성결교회는 4월 22일 제46회 정기총회를 열고 미래 발전을 위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한국성결신문

이석 목사(새소망교회)가 각각 선출되었다.

장로 부총회장과 회계, 부회계는 입후보자가 없어 현장에서 추천을 받아 장로부총회장에 정인충 장로(시카고 다솜교회)가 선임되었다. 또 회계에는 정주현 장로(면류관교회)가 재 선임되었으며, 허요한 장로(하와이 갈보리교회)가 신임 부회계로 당선됐다.

관심을 모은 총무 선거에서는 현

총무 김시온 목사(옹기장이교회)가 재선에 성공했다. 김 목사는 총 119명 중 69표를 얻어 50표를 얻은 김종률 목사(사우스베이선교교회)를 누르고 총무로 재선임되었다.

이번 종회에서는 이민 교회 고령화에 따른 대안으로 목회자와 장로 등의 정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년연장연구위원회(위원장 황

하균 목사)는 경상비 5만불 이하의

교회에 한하여 후임을 청빙하지 못 할 경우, 3년씩 2회까지 사역 연장을 허락하는 연구안을 상정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해결책으로 목회자와 직원(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하는 헌법개정안도 청원했다.

종회 대의원들은 정년 연장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연구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헌법 연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번에 통과된 두 유형의 정년 연장안은 헌연위에서 1년간 연구 후 기총회에서 다시 다루게 된다.

미주총회는 이와 함께 이민자 급감, 교세 약화 및 목회자 수급 부족 등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3년 임기의 ‘교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중부지방회와 중·남부지방회 통합의 건은 양 지방회의 통합 사유를 충분히 들여 선교부에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1년 더 연구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면 종회 격년 개최는 1년 더 연구하기로 했으며, 종회 폐회예배시 총회장 이취임 예배를 거행하기로 했다.

이번 하와이 종회는 사실상 하루 동안만 회무가 진행되었지만 개회부터 토론토 벤엘교회와 일부 목회자의 대의원 자격문제로 상당 시간 격론이 오갔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론토 벤엘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과 지방회 탈퇴 및 가입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당시자인 벤엘교회와 중앙지방회가 사과하고 대의원권을 유보하는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미주성결신문 기사 제공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9회 총회 신임 부총회장에 당선된 김종문 목사.

©기독일보

교회들의 사역이 어렵다. 이민자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고 한인 성도들의 자녀들도 그런 형편”이라며 “이런 가운데 KPCA는 믿음을 지키며 세속주의의 가장 거센 물결인 동성애를 막아내고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지난 한해 동안 종회에 평안이 찾아왔다. 이것이 실질적 평안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쓸

것”이라며 “또한 교단의 재정 잘 활용해 안식년을 갖는 분들을 지원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장로부총회장에는 단독 후보인 배문성 장로(서북남노회)가 투표 결과 찬성 218표로 선출됐다. 배 장로는 “종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종회장님을 보필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또한 여러 종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해 봉사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한인교회들로 구성된 KPCA

는 지난 2010년 서울 명성교회에서 제35회 종회를 가진 이후 15년 만에 이번에 다시 한국에서 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직전 종회장인 박태경 목사는 ‘희년을 준비합시다’(례 25:8~12)라는 제목으로 전한 개회예배 설교에서 “KPCA는 창립 50주년인 희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나? 이는 동시에 현대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등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업적을 언급한 박 목사는 “앞으로 KPCA 종회와 20개 노회와 지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 세계교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을 믿는다”며 “여기까지 헌

신하신 선배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위대한 KPCA를 만들어 갈 믿음의 동역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사무총장 김광철 목사는 “종회는 2026년에 맞을 희년을 준비하고 있다. 종회를 세우시고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종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종회가 맑은 바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순창 목사(예장 통합 중경총회장)는 내빈인사에서 “별빛들이 모여 은하를 이루고, 빛줄기가 모여 강물을 이루듯, 26개 국에 흩어져 있는 KPCA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선교와 헌신으로 영적 불빛이 밝혀질 줄 믿는다”고 전했다.



###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안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사랑하는  
마음으로  
G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센터메디컬 클리닉  
플러튼 지역  
가정의학 전문의

# 나 조이스리 는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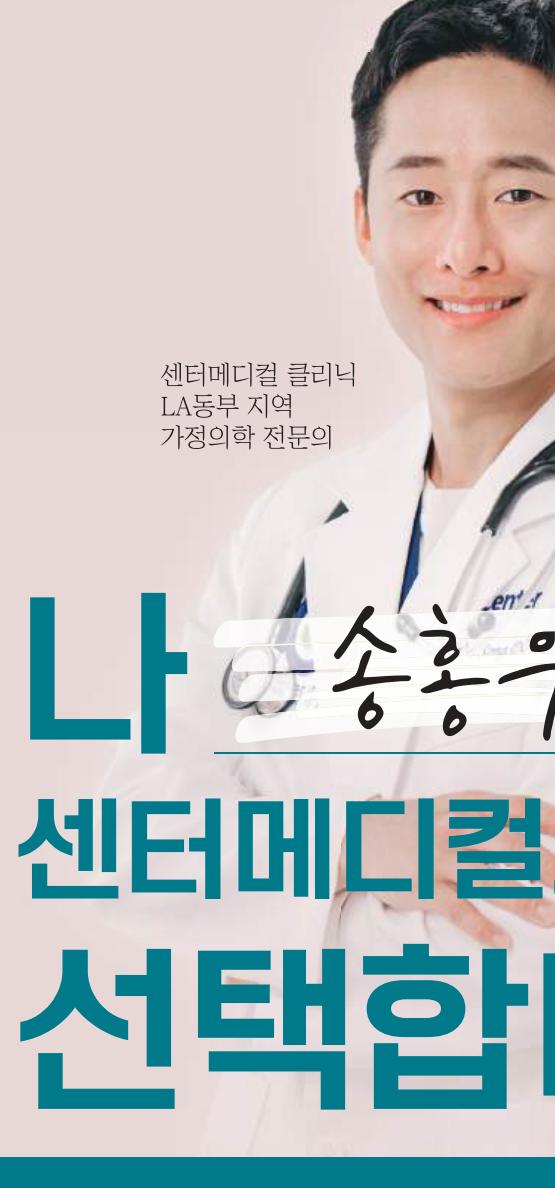
하루에 몇 명을 진료했는지보다, 환자 한 분 한 분과 진정성 있게  
마주하는 진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특히,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을 안고 계신 어머님들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주 한인 사회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714-519-3024**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센터메디컬 클리닉  
LA동부 지역  
가정의학 전문의

# 나 송홍우 는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LA 동부 지역에 계신 시니어분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제 지식과 진심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부모님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626-363-4661**

19115 Colima Rd, Unit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역  
내과 전문의

# 나 김유일 은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저는 의사의 역할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함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나 턱관절 문제로 오랜 시간 삶의 질이 떨어진 채  
지내오신 분들이 보톡스와 PRP 주사치료를 통해 편안함을 되찾고,  
다시 일상을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회복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따뜻한 진료를 실천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714-583-8569**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센터메디컬 클리닉  
OC 지역  
정신과 전문의

# 나 조제두 은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자라온 1.5세로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에 놀 끼울이고 있습니다.

우울, 불안, 조울증 같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치매, 수면장애, 공황과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지친 분들까지,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환자 중심의 따뜻한 진료, 그 삶에 온기를 더하는 길을  
저는 지금 센터메디컬그룹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플러튼 지점 714-519-3024  
가든그로브 지점 714-583-8569  
로렌하이츠 지점 626-363-4661

**센터메디컬그룹**

# 기독교, 북미·유럽에선 '세속화·쇠퇴' 라틴·아프리카에선 '성장'

세계 85개 국 9만1천 명 대상 '글로벌 성경 인식 조사'

기독교 주류 사회였던 북미와 유럽에서 기독교가 세속화하거나 쇠퇴하는 반면,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영국성서공회와 협력해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Gallup)을 통해 전 세계 85개 국 9만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성경 인식 조사(World Bible Attitude Survey)'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고 대한성서공회가 2일 전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세계 주요 지역에서의 기독교 상황은 아래와 같다.

**그룹1-사헬 지역:** 무슬림 주류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성경 접근과 참여가 어려운 상황. 열악한 지원을 가진 소수의 기독교인.

**그룹2-동유럽:** 쇠퇴하는 기독교 주류 사회. 일상 가운데 종교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세속화되어가는 과정.

**그룹3-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무슬림 주류 사회. 정치적 요인으로 성경 접근과 참여가 제한적.



'글로벌 성경 인식 조사'에서 발표한 유사성을 공유하는 7개의 그룹 ©대한성서공회

소수의 기독교인.

**그룹4-라틴 아메리카:** 기독교 주류 사회. 세속화되어거나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그룹5-북미, 서유럽, 호주:** 세속화된 사회. 기독교 인구 감소화.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그룹6-아시아:** 다종교 사회. 성경에 대한 인식 부족. 소수의 기독교인.

**그룹7-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 주류 사회.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기독교가 주류였던 북미와 유럽에서 기독교는 세속화거나 쇠퇴하고 있다.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성경에 대한 관심도도 낮다.

공회 측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성경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부족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64%는 성경에 관한 관심이 없었으며, 10명 중 7명은 성

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비기독교인 중 64%는 성경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세속화된 국가 그룹에서 성경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도전 과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활용도가 확인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해 대한성서공회는 성경 보급 사역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 출판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성경 제작과 미자립성서 공회에 대한 기증을 통해 성서 사업을 지원해, 2024년 한 해 동안 보급한 총 420만여 부의 해외 성서 중 53.9%를 아프리카에, 14.8%를 라틴 아메리카에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 기증한 총 84만여 부 중 절반 이상인 42만여 부를 아프리카에 기증했다.

공회 측은 "이는 성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시에 전하고자 하는 전략적 사역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바탕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세계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사역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활용도가 확인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경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를 유사성을 공유하는 그룹별로 보여주었다"며 "특히 성경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과, 여전히 깊은 관심을 보이는 지역 간의 격차는 향후 세계 복음화 전략과 성경 보급 활동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성경이 다음 세대와 세계 속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 "하나님 나라의 정치 향한 실천적 지혜와 대안은?"

한국신약학회(회장 이민규 박사)가 3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소재 청계열린교회(담임 이두상 목사)에서 '신약성서의 정치학-정세에 개입하는 성서해석'이라는 주제로 2025년 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차정식 박사(한일장신대)가 "신약성서의 '정치' 이해를 위한 몇 가지 관점과 대안-1세기 신약성서와 21세기 한국 정치의 소통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 ◆ 두 가지 대전제에 관해

차 박사는 "1세기 지중해 연안은 로마제국과 유대교가 각각의 신정통치 체제를 운영하던 시대였다"며 "당시 권력자들은 종교를 통해 정치권력을 정당화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종교 권위를 이용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그 시대 정치와 종교의 관계적 상황을 이해하

는 틀로 차용하는 것은 역으로 투사된 착오"라며 "이런 현실 가운데 정치적 이해관계는 종교적 이해관계와 종종 삼투하거나 상통하였다"고 했다.

특히 "그 점점 위에 누가복음의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의기투합하여 친구가 되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종교적 이해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 대전제로 예수와 바울의 정치적 입장이 미세한 차이가 있음을 말했다.

차 박사는 "예수는 민중 중심의 비폭력적 대중 정치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며, 로마 통치나 이방문화에 대해선 유대인 특유의 반이교적 정서를 간직한 채 거리를 두었다"며 "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적극 활용해 법과 질서를 선교의 도구로 삼았고, 때로는 공권력에 복종할 것을 교회에 권면한 실용적 점

근을 취했다"고 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오늘날 신앙인들이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치는 인간의 욕망을 기반으로 복잡하게 얹혀 있고, 종교 역시 이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 기독교인이 현실 정치에 대응할 때 필요한 세 가지 기준

차 박사는 기독교인이 현실 정치에 대응할 때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정치적 이익이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는 윤리적 점점 위에 계발하고 슬기롭게 갈무리하는 지성이 요청된다"며 "둘째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 기준을 통해 공공의 의리를 분별할 능력을 갖춰야 하고, 셋째로 정치적 실천은 거시적 정세보다도 일상의 다양한 관계와 공동체 안에

서 '작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교회와 신학교, 교단, 대형교회와 미자립 교회 간의 지원 재분배 문제를 예로 들며 "이것은 신약성서의 예수와 바울이 꿈꾸며 공들여 필사적으로 실천한 하나님의 목표였다"고 했다. 그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가 둑우어져 평坦케 되리라고 예언한 메시아의 정치와, 많이 거둔 자도 넘치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균등케 하리라고 신약성서 최초로 연보의 원칙을 제시한 바울의 정치경제적 기준이 그 대표적인 예"라며 "이런 삶의 자리에 배태된 신학적 의의가 이 시대 국가정치와 교회정치가 만나는 현장 속으로 성육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배제하고 따라가는 모든 정치 행위와 권력의 행사는 온갖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에도 불구하고 궁

극적으로 위선적 자가당착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분과별 발표도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는 ▲김덕기 박사(대전신학대학원[은퇴])가 '바울 정치학의 모호성과 급진성: 앙가주망을 위한 고린도전서의 문화비평적 해석' ▲설재록 박사(연세대)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감정의 문화정치' ▲조규홍 목사(Univ. of Toronto)가 '부활 신학의 정치적 읽기: 나사로의 부활(요 11:1-45)을 중심으로' 자유 발표에는 ▲이서영 박사(한신대)가 '트라우마를 통한 '예수의 탄식'(막 15:34) 이해' ▲이상일 박사(총신대)가 '디모데후서 2:22의 '청년의 정욕'에 대한 인구학적인 재고' ▲김서준 박사(계명대)가 '침된 신앙의 표지로서의 연보: 바울의 연보의 의미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장요한 기자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보트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보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장 인사말

### 탈보트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보트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	 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	 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	 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	 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
 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	 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

#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 “다윗 같은 정치인 달라 기도하기 전, 국민들부터 깨워야”

## 제3차 ‘리바이벌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 열려

제3차 ‘리바이벌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 하자는 취지의 이 기도회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직전 주간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기도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 담임)가 첫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맑은 정부의 근원은 교회다’(삼하 1: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정치인’이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정치인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것 이 이번 미스바광장기도회의 목적 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런 정치인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우리 나라에 다윗과 같은 정치인이 없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그런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는 국민들이 부족하다는데,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정치적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한 나라의 정치적인 위기는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정치인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다윗과 같은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는 국민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와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이 땅의 국민들과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치적,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인도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좋은 정부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돋고, 악한 정부는 그것을 방해한다. 정부는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조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법을 통해 그것을 강제로 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살인자와 도둑, 음주운전자와 아동 착취자, 마약사범들을 막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사회를 위협하고 생명을 파괴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고 보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결혼제도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의 정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공직은 바로 성직인



제3차 ‘리바이벌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 리바이벌코리아

것”이라며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많은 선한 정부가 나타나도록 마땅히 기도하고,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 할 영역은 단 한 뼘도 없는 것이다. 당연히 정치 영역도 예외가 아니”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정치 영역을 간과했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해’라는식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결과”라고 했다.

이 목사는 “그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교회가, 이 중요한 정치 영역에 대해 침묵하는 틈을 타고 들어와, 결국 사탄 마귀가 이 중요한 정치 영역을 완전히 집어 삼

기게 된 것”이라며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는 그와 같은 마귀의 역습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근원은 교회다. 정치의 새로운 물줄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정치와 법과 제도를 도와시하는 그런 비겁한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지금 이 민족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나 아니면 공산주의나를 두고 펼쳐지고 있는 체제 전쟁”이라며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정치인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국민들부터 흔들어 깨워야 한다. 내 남편과 아내를 흔들어 깨워야 하고, 내 자녀와 내 부모를 흔들어 깨워야 하고, 우리 교회 목사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깨워, 정치적인 무관심과 정치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계몽시켜야 한다. 정치적 계몽

운동.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국에, 복음전도와 함께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성경적 보수주의 운동을 통한 국민 사상 개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 사명을 리바이벌코리아가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며 “맑은 정부의 근원은 바로 맑은 교회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선다. 한국교회로부터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물줄기가 흘러 나오게 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두 번째 설교자로 나선 황은혜 목사(그레이스선교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마 5:14~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 목사는 기도회에 모인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자녀다. 지금 이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빛의 자녀”라고 했다. 황 목사는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을 잃게 된다. 예수님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며 “지금은 이 나라가 빛으로 가느냐 어둠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따라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어둠으로 가면 망한다고, 밝은 빛으로 나아오라고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했다. 황 목사는 “빛이 된다는 건 구별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성한 자존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미 교회에 코로나 봉쇄령 위반 17억 벌금 판결… 항소 예정



갈보리채플 마이클 맥클루어 목사. ©갈보리채플 페이스북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가 코로나19 봉쇄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20만 달러(약 17억)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아 1백22만8천7백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지난 4월 15일 항소 법원이 교회에 불리한 이전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갈보리 채플은 벌금에 대한 법적 싸움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갈보리 채플은 변호하는 타일러 로 LLP의 로버트 타일러 변호사는 최근 CP에 “교회가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일러 변호사는 “서면 판결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모두 잘못되었다”라며 “우리는 패널 재심리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타일러 변호사에 따르면, “벌금은 표면적으로 무효인 위반 통지에 따른 것”이며, 항소법원은 4월 15일 판결에서 이를 무시했다. 그는 “

상급 법원에 제출할 매우 큰 소송 책임이 있다”라며 “위반 통지서에는 교회가 신도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에 발부된 (임시 금지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위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항소 법원은 이미 해당 명령이 무효이고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갈보리 채플은 예배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회가 지방 당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프

로토콜을 제출하도록 하는 카운티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아 막대한 벌금을 물었다. 갈보리 채플은 카운티 공중 보건 당국의 마스크 착용 명령이 위헌이며 벌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벌금 납부를 거부했다. 갈보리 채플은 벌금에 맞서 싸우는 동안 코로나19 제한 조치에 대해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 위원회는 지난해 4월 만장일치 판결로 이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2023년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이 문제에 대한 주 소송이 아직 심리 중이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적절하게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이미경 기자

## 말씀 팔찌 손목 위의 은혜



\$13.99

개인 및 소량 주문 웹사이트에서 구입 가능  
50개 이상 단체주문은 전화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 단체주문 상담환영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대기만 하면 하루의 성경 말씀이 펼쳐집니다!  
원하는 로고나 글씨를 새길 수도 있어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용으로 추천!

자녀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방법!  
간편하게 매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지금 경험해 보세요!



### 문의

기독일보 정다혜 실장(213-434-1170)

Email : chdailyla@gmail.com

[www.j1mart.com](http://www.j1mart.com)

## “미얀마 지진 한 달 아동들 악몽 끝나지 않아”



▲미얀마 만달레이 인근 이재민 캠프에서 홍수로 물에 잠긴 길을 걷는 아동. ©세이브더칠드런

미얀마 중부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수많은 이재민이 여전히 불안정한 임시 대피소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특히 아동과 가족들이 열악한 임시 대피소에서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약 20만 명이 집을 잃었고, 이 가운데 4만 2천 명 이상이 듯자리와 대나무, 방수포 등으로 급히 지어진 145개의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이 대피소들은 폭우와 폭염을 막기 어려워, 많은 이들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진 후에도 여전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어, 무너진 집으로 돌아가거나 수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미얀마에서는 5월 우기가 시작돼, 임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4월 중순 갑작스러운 폭우로 만달레이 인근 이재민 캠프가 물에 잠기는 등 기상 악화로 이재민들의 생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재민이 겪는 어려움은 주거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이 부족해 콜레라, 뎅기열 등 물과 모기를 매개로 한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지진 피해를 입은 주요 도시는 지진으로 상수도 시설이 망가져 깨끗한

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피부 감염 위험도 커지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천 7백 명 이상, 부상자는 4천 8백 명에 달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지역 중 일부는 정확한 피해 짐계가 어려워 구조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살 난 아이를 키우는 텁턴 씨(32)는 “집이 무너져 축구장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다 지금은 임시 대피소에 있다”며 “수입도 없고 여진도 계속돼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이곳이 당분간 우리 가족의 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러 구호단체와 국가, 기업들이 긴급 구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은 끊없이 부족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금까지 쌀, 통조림, 침낭, 모기장 등 생필품을 비롯해 긴급 가정용 키트 1만 개와 대피소 6백 곳 이상을 제공했다. 하지만 장기 복구와 안전한 주거, 깨끗한 식수 공급 등 근본 해결책이 절실했던 상황이다. 제레미 스토너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 사무소 디렉터 대행은 “미얀마 아동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기부자들의 빠르고 유연한 자금 지원이 지금 절실히”고 호소했다.

신미셀 기자

##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암 이겨낸 한 신자의 고백



바바라 로드리게즈 작가. ©medium.com/@barbara.rodriguezfreelance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바바라 로드리게스 작가의 기고글인 ‘왜 침묵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WHY ARE YOU SILENT? JESUS DIDN’T RESCUE ME SO I COULD BLEND IN)를 1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로드리게스 작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믿음, 회복력,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글을 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한때 나는 침묵했다. 암을 이겨낸 후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을 직접 목격한 후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속하신 그분의 역사 앞에서도 말이다. 나는 감사함이란 조용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겪손이란 작게 머무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거짓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진리는 점점 더 침묵하는 이 세상에서, 침묵은 겪손이 아니라 항복이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에게 희망을 준 것은 의사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이셨다. 내 생명을 구한 것은 치료 계획이 아니라 눈물 속에 속삭인 기도였고, 생명줄이 되어준 성경 말씀이

었고,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었다.

내가 오늘 살아 있는 것은 단순한 행운이나 과학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요, 치유자요, 왕 되신 분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동안 나는 그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주저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고,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조용히 있기를 강요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관용이라 부른다. 그것을 진보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삶과 공동체, 그리고 미래에서 지워내려는 시도일 뿐이다.

나는 부서진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 배경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던 그 감정을 잘 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섞여 사라지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내가 믿음을 숨기며 살라고 나를 치유하신 것이다. 그분은 나를 볼 속에서 건져내셔서,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려 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크리스천들이 일어서야 할 때다.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닌 진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다. 믿음의 속삭임 하나하나, 친양의 외침, “예수는 주이시다”라는 담대한 고백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목소리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영원을 울리는 강력한 합창이 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재 속에 속삭이게 하시려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빛 가운데 담대히,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시고,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최승현 기자

문서선교를

##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생 내적처유 영성집회  
어부이예배 주일 오후 2:00  
정년기초성경부 주일 오후 2:00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 백송교회  
복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뜰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 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세계기도회(화~금)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교로 새우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자녀기도회 오후 6: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 387-1700 olympiccc@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자녀기도회 오후 6: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국어,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후 5:30  
종교동부 오전 10:3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국어,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후 5:30  
종교동부 오전 10:30

곽부원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00  
하나님학교 오전 9:3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국어,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후 5: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진건호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 오전 10:00 하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0:30  
금요예배 오후 7:00  
영국어,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후 5:30  
종교동부 오전 10:30

이홍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0:30  
금요예배 오후 7:00  
영국어,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0:30  
금요예배 오후 7:00  
영국어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국윤권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찰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F. (310) 530-8400/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org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방상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GRC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장로예배 오전 9:45  
장로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성경부 오전 9:30, 11:30

한국대학원대학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장유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예배 9:30am 수요찬양예배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www.okcrc.org

구봉주 담임목사



모래별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별가든국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림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박신웅 담당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대학 오후 2:30

열반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1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주일) 오전 6: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례신도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일) 새벽 6:00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토)

2부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1:30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8: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토)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토)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1:30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우영화 담임목사



주일예배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금요예배집회 저녁 7:30(금)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월-금) 오전 6:00(토)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월-금) 오전 6:0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3)

5540 Schaef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월-금) 오전 6:00(토)

한빛장로교회

신미셀 기자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 미 장로회(PCA), '교인·현금·신앙고백'

## “네덜란드, 조력자살 합법화 이후 급증… 英도 경각심 가져야”



©Pexel

영국과 웨일스에서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의 3차 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들 반대하는 시민운동가들은 조력자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상황을 언급하며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네덜란드 당국이 최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4년 조력자살 건수는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조력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약 1만 명 미만으로, 이는 전체 사망자의 5%가 넘는 수치이다.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2002년 이후 최고치다.

네덜란드에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으며 개선의 가능성에 전혀 없는 경우”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말기 질환이 아닌 정신 질환 환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조력자살 사례의 대부분은 여전히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지만, 정신 질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정신 질환으로 조력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2010년에는 단 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38명, 2024년에는 219명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 지역 조력자살 검토위원회(RTE)는 “의사들은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안락사에 동의하기 전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제3자의 의학적 소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RTE는 “의사는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 항상 정신과 전문의 도움을 받아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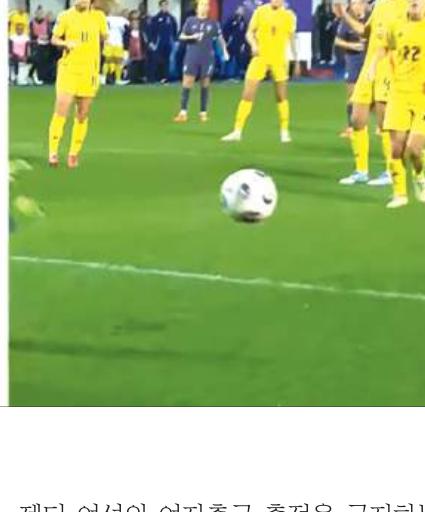
다. 이는 의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네덜란드에서는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조력자살을 시행한 사례가 6건이나 발생했다. 한 사례의 경우, 의사가 강박적 욕구를 가진 여성에게 정신과 의사와 상의 없이 조력자살을 허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와 더불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0세 미만의 청년들이 조력자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암스테르담 대학의료센터 정신과 교수인 다미안 데니스(Damiaan Denys) 박사는 “아직 뇌가 발달하고 있는 나이의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하는지, 삶이 절망적이고 장래성이 없는지, 모든 치료가 이미 다 끝났는지 어떻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며 이러한 주제를 비판했다. 영국과 웨일스에서 조력자살 합법화를 반대하는 운동가들은 해당 법안의 2차 국회에서 “과거 법안에서는 조력자살에 대한 승인을 ‘고등법원 판사’가 하도록 규정했으나, 이후 이것을 ‘전문가 패널’이 하도록 변경되면서 안전 조치 조항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 질환과 섭식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미셀 기자

## 잉글랜드축구협회, 트랜스젠더의 여자 경기 출전 허용 재검토



©잉글랜드축구협회 홈페이지.

잉글랜드축구협회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축구’ 출전 허용 결정을 재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4월 30일(한국 시간) “잉글랜드축구협회가 몇 주 전 내린 성전환 여성의 여자축구 출전 허용 결정을 신중히 재검토(carefully reviewing)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대법원이 이는 지난 16일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영국 대법원은 ‘포 위민 스코틀랜드’(For Women Scotland)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성별이 명확하게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스코틀랜드축구협회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BBC 스코틀랜드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축구협회는 트랜스

젠더 여성의 여자축구 출전을 금지하는 새로운 성별 정책을 도입했으며, 2025-2026 시즌부터 스코틀랜드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선수만 여자 축구 경기에 출전하게 했다.

새로운 정책은 ‘13세 이하(U-13)부터 성인’까지, 유소년 및 아마추어 리그를 포함한 스코틀랜드 전역의 모든 여자축구 경기에 적용된다.

스코틀랜드축구협회의 규정 변경은 이미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러비, 수영, 육상 등과 보조를 맞추는 차원으로, 이들 종목은 남성 사춘기를 겪은 사람의 여자부 출전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잉글랜드축구협회는 4월 초 “12개월 이상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한 ‘성전환 여성’의 여자축구 경기 출전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결정을 재검토하게 됐다. 현재 잉글랜드축구협회에 등록된 트랜스젠더 여자 선수는 약 20명이지만 프로팀에 등록된 선수는 없는 상태다.

강혜진 기자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침이기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후 11:00 세박예배(전 520화-금) 오후 6: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박예배(화-토) 오후 6:00, (토)오후 6:30

**한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ECO선한목자교회**  
교화여, 성숙하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세박예배  
-부(7:30AM) -부(9:00AM) -평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예배 06:00AM  
-3부 11:00AM

**장수영 담임목사**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학년) 11:00 AM 세박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어부 (24개월 이하) 11:00 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기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gmc.org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church.com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 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교령부(College) 오전 12:30  
유년부(K-2) 오전 10:30 학교예배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세박예배(화-토) 오전 6:00

**강문수 담임목사**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쁨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병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이기페)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세박기부예배(음체)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 금모모임(금) 오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오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awn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학여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화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노원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온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EM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주일 오전 6:00(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성찬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l.org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iccc.office@gmail.com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예배 오후 5:3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onnuribk.com/anc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후 10:15 (한국어, 스페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화)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www.fgvlchurch.com/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후 7:00 E.lvkchurch@gmail.com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오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6:00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www.joongangly.org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30 AM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eunchurch.com

**기독일보**

크리스천 비지니스

# CHRISTIAN BUSINESS

##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O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0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 아이넥스 바디샵

####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 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크피(Beauty College) 최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문의 (213)392-2323

###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주님 미디어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여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차차 오방여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 창작가곡제가 성황리에 열리다

2025년 창작가곡제가 남가주음악가협회(회장 오성애)와 뉴욕한인창작음악회가 공동 주최로 5월 3일(토) 오후 5시 세리토스칼리지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

번 창작가곡제는 미 전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시인들의 시에 한인 작곡가들이 곡을 붙여 감성 넘치는 연주자들을 통해 공연되고 있는 창작가곡제는 유튜브에도 업로

드되었다.

이날 음악회에서 오성애 회장은 “시와 음악을 사랑하시는 도너들의 따듯한 후원이 있어서 창작가곡제가 가능했다”고 말하고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SCAN ME

2025년  
대박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고滴滴하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 \*\*\* 전기세 50~90% 절감 \*\*\*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택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 솔라 설치 가능

##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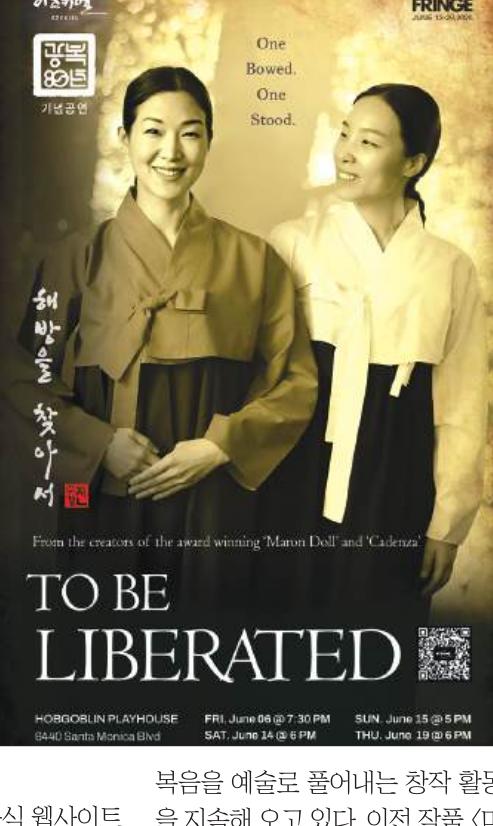
BTSSolar

BTSSolar

BTSSolar

BTSSolar

BTSSolar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신양의 자유와 용서, 회복을 성찰하는 창작극 <해방을 찾아서(To Be Liberated)>가 2025 헐리우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출품된다.

극단 이즈키엘은 해방 80주년을 기념하며 이번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해방을 찾아서>는 1945년 해방의 아침,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마주한 두 여성의 침묵 속 만남으로 시작된다. 신양과 생존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그날, 누군가는 굴복했고 누군가는 버텼다”는 질문을 중심에 두며, 그 선택이 남긴 상처와 회복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드러낸다.

작품은 역사극을 넘어, 신양의 본질과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를 관객에게 묻는다. 복음적 메시지를 품은 대사와 상징성 강한 무대 구성은 기독교 신앙인뿐 아니라, 신양의 무게를 고민해 본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연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연출은 전수경,

출연은 김수연·김소정, 라이브 연주는 김동석 전 UCLA 민족음악과 교수의 제자인 가야금 연주자 조셉 황이 맡았다.

<해방을 찾아서>는 6월 6일부터 19일까지 LA 흡고블린 플레이하우스 (Hobgoblin Playhouse)에서 총 4회 공연되며, 아시아계 정체성을 주제로 한 또 다른 연극 <나의 호랑이(My Tiger)>와 함께 프린지 페스티벌에 출품된다.

두 작품은 함께 번들 티켓(\$20)으로 예매할 수 있

으며, 티켓은 프린지 공식 웹사이트 ([www.hff19.org/12112](http://www.hff19.org/12112))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극단 이즈키엘은 2013년 LA에서 창단된 기독교 공연예술 단체로,

복음을 예술로 풀어내는 창작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전 작품 <마리인형>, <카덴자>는 헐리우드 프린지에서 수상했다. 문의는 (213) 200-9544 또는 [ezekieldrama@gmail.com](mailto:ezekieldrama@gmail.com)으로 하면 된다.

## 구봉주 칼럼

## 어머니 = 기도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닌 철학을 쫓았고, 진리가 아닌 패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따라다니며, 늘 교회 한 구석에서 눈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밀라노의 정원 한 켠에서 어거스틴은 자신도 모르게 우연히 성경을 펼고, 말씀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정육과 술 취함을 벗어버리라.” 말씀에 은혜를 받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옆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소리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두 번 낳았습니다. 한 번은 육체로, 또 한 번은 기도와 눈물로.”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허드슨이 17세였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선교사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출타하신 어느 날, 그가 무료하여, 찬장에 있던 작은 책자를 집어 들었는데, 그

책에는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순간 깊은 찔림을 느꼈고, 그는 즉각적으로 회심하였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바로 그 시각, 그의 어머니 아멜리아는 50마일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아들을 위해 기도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자, 허드슨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났다고 어머니께 간증하자, 어머니 아멜리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그날, 내 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단다.” 허드슨이 어머니 아멜리아는 기도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정도로 기도의 영감, 기도의 영성을 갖춘 기도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제 어머니도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유학 중에 극적으로 회심한 것도,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것도 모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모두 저의 의지가 아닌,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할 기도의 역할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야 자녀가 삽니다.

## 하늘바라기



## 그의 손길 - 김은주

그의 손길 솜사탕 같아 부드러워라  
그의 손길 둥지 같아 안전하여라  
그의 손길 날개 같아 행복하여라  
그의 손길 태양 같아 사랑이어라

하늘 끝 닿아  
바다 끝 닿아  
그의 손길 무한하여라

어머니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감동케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막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볼 때,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사무엘을 만들었던 것처럼, 기도는 어머니 어머니는 곧 기도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총명하고 재능이 넘치는

## 한남옥 칼럼

## ‘가정사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론 헌터 외 14인 지음

한남옥 권사  
시인, 수필가  
나성영락교회 권사

으로 먼저 떠나시며 멈춰버렸다. 시계처럼… ‘가정사역 처음부터 다시하기’ 책 걸표지에 텁니바퀴 세 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그림이 눈에 띄었다. ‘교회, 가정, 학교를 상징하는 그림이 각각의 기어에 그려져 있다. 이책을 읽으며, 다시금 멈췄던 ‘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책은 단지 가정사역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다. 멈춰버린 텁니를 다시 맞물리게 하여, 신앙의 다음 세대를 향한 움직임을 되살리는 소망의 서사이다.

교회, 가정, 학교는 따로 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자녀를 제자삼는 세축이다. 세개의 기어는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멈춘다면 전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교회는 말씀과 공동체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고, 가정은 일상의 삶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무대이며, 학교는 세상 속에서 신앙적 사고를 훈련하는 장이다. 세 기어는 마치 삼중 나선처럼 서로 얹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유기적 생명체가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공간, 가정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제자 훈련자로서야 하는 이유이다.

저자가 론 헌터 외 14명,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세대간 가족사역 전문가들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책이기에 구체적인 진단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나누고 싶은 메

세지가 많지만 이책 4장에서 소개하는 ‘TALK ABE’ 대화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TALK ABE’ 대화법은 부모가 자녀와 의미있는 대화를 이어가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TALK는 건강한 대화의 시작이다.

T (Topics):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꺼내며 대화의 문을 연다.

A (Ask Questions): 진심 어린 질문은 아이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신호이다.

L (Listen):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이 대화의 핵심이다.

K (Kudos): 존재와 태도, 노력에 대해 격려한다. ‘1등 했구나’보다 ‘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낸 너의 자세가 멋졌어’처럼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칭찬이 아이의 내면을 자라게 한다.

A (Approach): 존중과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접근 방식이다. 대화는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 훈계보다 공감과 따뜻함으로 다가가야 아이의 마음도 문을 연다. 대화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지,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B (Brain): 대화는 아이의 ‘생각’을 키운다. “넌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을 통해, 아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각을 갖게된다.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E (Emotion): 감정을 함께 나누며 마음을 이어주는 진심의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가 슬플 때, 기쁠 때, 속상할 때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정서를 건강하게 한다. 사랑은 말로 표현할 때 진짜 힘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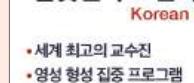
이 대화공식은 아브라함 링컨의 삶에서 따온 기억법이기도 하다. 링컨은 날카로운 논리와 따뜻한 감성,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말로 설득하기보다 마음으로 다가가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다. 여러분도 이 대화법으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복음을 품은 말, 주님의 사랑을 담은 말로 공동체를 세워가면 좋겠다.

우리 삶의 텁니는 다시 맞춰질 수 있다

‘reCalibrate’는 ‘멈춰도 괜찮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신앙의 텁니가 빠져나가고 멈춘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 하루 한 절 말씀을 나누는 것, 잠들기 전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감사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이 소소한 신앙의 행동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복음의 유산이 된다.

이책을 보며 내 엄마의 멈췄던 시계를 다시 살리고, 엄마의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들을 떠올리며 나도 다시 시작한다. 가정의 신앙 시계를 다시 맞추는 부르심처럼 느껴졌다. 우리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 시계의 일부가 되어 할 시간이다.

##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신입생 모집

##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카카오톡 채널: “탈북” 검색

유튜브: “탈북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Tel: (213)388-2322

www.biola.edu admissions@wmu.edu

##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회(BA), 목회학회(M.Div), 신학회, 선교학회,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현 박사 Tel(202)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amp;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인터넷 홈페이지 www.mpls.edu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 폭넓은 미관지향적 교육을 주제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복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일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퍸스 및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성경학, 음악학, 기종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22

www.wmu.edu admissions@wmu.edu

##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 전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정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명 이중언어과정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amp;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대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112/admin.kore@itsla.edu



MOTHER'S DAY PREMIUM TROT DINNER SHOW

## 프리미엄 트롯

## 디너쇼

마더스데이를 맞아 미스 & 미스터트롯 스타들과 함께하는 감동의 디너쇼를 부모님께 선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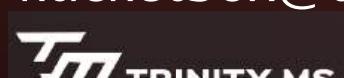


나태주 미스터트롯1

김의영 미스트롯 2

강예슬 미스트롯 1

2025년 5월 11일 오후 6시 (입장|오후4시)  
Taglyan Complex (엘에이 최고의 이벤트 허)

문의 | [kticketbox@trinity-ms.com](mailto:kticketbox@trinity-ms.com)

Kticketbox



## 김한요 칼럼

## 생각 바꾸기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에 기준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지진과 같은 사건이 아니면, 생각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 드리는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좀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는 일이 마음의 결심 한 번으로 180도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의 운전자가 바뀐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흔들릴 때마다 옛 모습이 재생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대는 확실히 예수님의 쥐고 계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손님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운전하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이후 내가 가고 싶

은 곳에 내 맘대로 운전해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갈등도 없다가, 가끔씩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운전석에 다시 앉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얼마나 길을 헤매고 다녔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재미있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지금의 성찬식 기원이 되는 상징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떡(빵)을 떼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깨어지신 자신의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흘려 주신 주님의 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며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기억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는 잘 잊어 버리는 습관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상기시켜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건입니다.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아차 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진지한 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움직였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한다면, 마귀에서 완전 속은 것입니다.



© pixabay.com

## 이주형의 시간의 지문

## 신의 입자, 힉스 보손, 과학이 마주한 창조주의 지문(2)

이 주 형 대표  
CM 훌딩스

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3)

놀랍게도, 힉스 이론이 말하는 ‘모든 입자에 동일하게 퍼진 힉스 장’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능력,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탱하고 구성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있게 했다.” 이 고백은 단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날 입자 물리학은 그 자체로 “보이지 않는 필드”가 “보이는 물질”을 형성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필드가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힉스 이론의 핵심이

며, 동시에 성경적 창조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 5. 신의 입자가 말하는 것- 과학과 신앙의 접점

세상은 자주 과학과 신앙이 대립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과학은 언제나 신앙의 경외심을 자극합니다. 진리의 탐구는 창조주를 향한 경탄으로 이어집니다.

‘신의 입자’라 불린 힉스 보손은, 그 입자가 지시하는 질서, 구조, 미세조정, 통합성은, 누군가가 이 우주를 목적과 계획 아래 세우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힉스 입자야말로, 그 가리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창조의 흔적을 읽는 우리에게 과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의 정교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힉스 입자라는 현대 과학의 정수 앞에서,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엿보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합니다.

이 우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질량이 있고, 빛이 있고, 구조가 있으며, 법칙이 존재하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힉스 입자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도 과학은 우주의 비밀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1)

## 어머님 - 황금찬

내가 혹 밤늦게 돌아올 때나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앓거나 할 때면  
어머님은 언제나 기도를 드리셨다.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자식들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당신의 품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장차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군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머님은  
기도를 끝 맞추시고  
얼마 후에야 「아멘」을  
음성에 힘을 주어 하신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  
나는 고아가 된 느낌으로  
며칠을 두고 울었다.

지금은 내가  
내 무릎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린다.  
그런데  
옛날 어머니의 음성처럼  
내 기도엔 힘이 없다.

그립다.  
어머님의 그 힘있던 음성으로  
드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는 것이-----.

황금찬(黃錦燦, 1918년 8월 10일- 2017년 4월 8일) 시인은 강원도 속초 출생으로 〈문예〉지에 시 〈경주를 지나며〉(1953년)를, 〈현대문학〉에 〈접동새〉, 〈여운〉(1955년) 등이 추천되어 문단에 데뷔했다. 일본 도쿄 다이토(大同) 학원 대학을 중퇴하였으며 동성고 교사와 중앙신학대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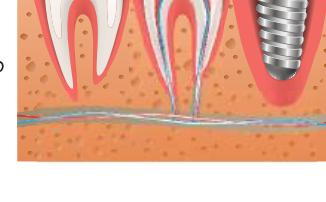
평생 총 40권에 달하는 시집을 펴냈으며, 생활 속 쉴 새 없이 2,000여 편의 시를 비롯하여 8,000여 편의 작품을 남긴, 다작(多作)의 문학계 원로였다. - 조덕영 박사

#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의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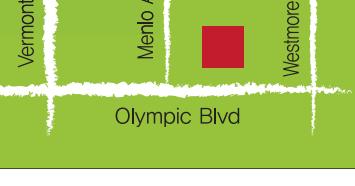
##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울린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황 20회 (혈액순환)	- 훈육 1시간
- 뜰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심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성경은 결코 지루한 책이 아니다

## 성경을 더 깊고 재미있게 읽는 14가지 방법



## 달고 오묘한 성경 읽기

제임스 F. 코글리 |  
전의우 역 | 생명의말씀사 |  
240쪽 | 17,000원

내가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이  
다시 기쁨과 생명력이  
넘칠 수 있기를!

성경 통독을 넘어서  
성경을 더 깊이, 더 재미있게  
읽을 14가지 전략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성경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즐겨 읽어  
마땅한 이 성경을,  
정작 아무 감동도 없이  
정해진 분량을  
후다닥 읽어 치우고  
마는 걸까?

매년 기독교인들은 성경통독을 계획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성경통독 캠프나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책이나 도구들을 구입하기도 한다. 성도들이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경 일독표를 제공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 교회도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그 맛과 깊이가 달고 오묘하여 절대로 물리지(질리지) 않는다고 다들 말하는데, 실제로 통독에 임하는 성도들이 체감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너무 깊어서인지 재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늘 읽어온 책이다 보니 신선하게 읽히지 않을 때도 있다. 2024년 크리스채너티투데이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 특히 ‘성경과 묵상’ 부문에서 수상한 <달고 오묘한 성경 읽기>가 그런 면에서 반가웠다. 책의 부제는 원제와 의미가 유사하다: ‘성경 통독을 넘어서 성경을 더 깊이, 더 재미있게 읽을 14가지 전략(14 Fresh Ways to Enjoy the Bible)’.

책의 저자인 제임스 F. 코글리는 무디 신학교에서 20년 이상 성경을 가르친, 성경을 진실로 깊고 재미있게 읽을 줄 아는, 그리고 그 방법을 독자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지닌 학자다. 하지만 한 가지 먼저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저자가 제시한 14가지 ‘신선한’ 방법도 영원히 신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책이 제공하는 여러 전략이 성경을 흥미롭게 읽고 연구하도록 도와줄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을 대하는 새로운 마음과 동기가 항상 필요하다. 그것을 전제로 저자가 약속한 ‘성경 읽기를 더 많이 즐겁게 해 줄 전략’을 따르면, 독자는 이전과 다른 깊이와 흥미를 갖고 성경을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15쪽).

저자는 이 책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시된 구절들을 찾아 확인하면서 한 번에 한 장씩 읽는 것(17쪽)”을 추천한다. 보너스 챕터에서 저자는 성경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가령 반복해서 읽기, 소리 내서 읽기 등). 본문에서는 성경의 문학적 특징을 파악하면서 저자가 성경 본문을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였는지 파악하도록 돋는다.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찾아내고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스스로 읽어보면서 저자가 제시한 14가지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도록 권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그룹으로 이 책을 읽고 같이 성경 읽기를 해보는 것이다. 성경은 원래 공동체 앞에서 읽고 또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을 즐기는 14가지 신선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첫인상 ②라벨 읽기 ③마이크 앞으로 ④발사대 ⑤아름다운 북엔드 ⑥사물 학습 ⑦시 다이아몬드 ⑧위치, 위치, 위치 ⑨시간 관리 ⑩비순차성 ⑪반복 ⑫X표시 ⑬알림 ⑭데자뷔.

2019년 규장에서 출간된 <성경을 즐겁게 읽는 10가지 방법>에서 저자인 케이스 페린은 성경을 지루하지 않게 대하는 여러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코글리가 제시하는 전략이 페린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보다 성경의 문자적 특징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페린이 ‘성경을 읽는 법’에서 ‘읽는 법’을 가르치려 했다면, 코글리는 ‘성경’ 자체가 기록된 방식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의미를 찾아내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다. 가령 12번 ‘X표시’에서는 성경의 교차대구법적 구성을 설명하는데, 시나 내러티브 전제가 어떻게 교차대구법적으로 기록되었는지 파악하고 그 중앙에 위치한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도록 돋고, 3번 ‘마이크 앞으로’에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로 말하는 것(그래서 큰따옴표로 인용한 것)을 찾아서 저자가 왜 그것을 직접 인용했는지 의미를 찾아내도록 돋는다.

어떤 독자는 코글리가 제시한 성경 읽기 전략이 조금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국어 시간에



▲©픽사베이

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웠다. 저자가 제시한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문학 장치와 도구를 이미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성경은 단순한 문학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영감으로 쓰신 절대 진리와 권위가 담긴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글로 주셨다. 그러므로 겁먹지 말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으로 의도하신 그 깊은 뜻을 발견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려라. 저자가 이 책에서 소개한 여러 방법을 하나하나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관찰하고 읽고 연구하면, 분명 저자가 약속한 것처럼 성경을 더 깊이 그리고 재미있게 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찾는 이들에게, 들을 귀, 깨닫게 하시는 지혜, 그리고 말씀을 끌어내는 영적 미각,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감탄하고 예배하는 마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29

You will find him  
if you seek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DEUTERONOMY 4:29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통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사역자 쟁빙!

위싱턴주 (WA), 레이시 (Lacey)에 위치한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전임(Full-time) 사역자를 모십니다.

부서: 행정 및 전임 부목사 (Full time)

## 1. 지원 자격

- (1) 신실하게 팀 사역하실 목회자, 정규 신학교 졸업자 (M. Div)
- (2) 이중언어 가능하신 분
- (3) 교구사역 및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
- (4) 미국에서 거주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2. 지원 서류

- (1) 이력서 (가족사진), 자기 소개서 및 신앙 간증문
- (2) 최근 설교 영상 또는 설교 영상 링크
- (3) 신학교 졸업 증명서, 목사 인수 증명서
- (4) 추천서 (목사-2인): 목회자 2인 중에서 한 분은 현재 담임목사

## 3. 서류제출 및 마감

- 모든 서류를 ocp91@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마감일자: 6/21(토) (사역자를 구할 때까지)

4. 문의 허재영 목사: (253) 282-2322, 저희 교회는 KAPC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에 속한 교회로 홈페이지(www.kocpc.org)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Olympia Central Presbyterian Church

7241 Pacific Ave. SE, Lacey, WA 98503

Website: www.kocpc.org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두 미술가의 다른 신념 체계, 엇갈린 행보

## 월남 기독교 작가 김학수와 월북 맑시즘 작가 박문원

박문원 작가 사회주의 세계관  
노동계급 해방 공산주의 건설  
김학수 작가는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웃 위해  
기독교 세계관, 궁휼함과 섬김  
인생 항로 없어선 알 될 '뗏목'

더욱 고도한 예술수립을 기도하는 동시에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조선미술의 당면과제, 1945)."

이어 서양 미술은 부르주아 계급을 위한 '불구적' 예술이므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익을 대변하는 예술에 집중하며 공산주의 종주국 소비에트 예술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꾀했다.

"우리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제 모순을 폭로시키고 노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해오는 만국 프롤레타리아 미술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세계미술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제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조국 소비에트, 러시아의 미술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조선미술의 당면과제, 1945)."

몇 년 후 발표한 글에서도 '예술이란 하나의 선전수단(선전미술과 수수미술, 1948)'으로 규정,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무기가 될 것을 주문하였다. 월북한 후 문화성 제3대 부상, <조선미술> 발행을 맡는 가운데 김일성의 문예정책을 옹호, 홍보하는 글들을 발표하는 등 사회주의자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그와 정반대의 삶의 궤적을 보인 사람은 혜촌 김학수이다. 평양에서 태어난 김학수는 청소년 시절 하나님께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로 서약한 후 평생 그 약속을 준수하고자 힘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남한에 내려와 수많은 풍속화와 기록화 등 귀중한 문화적 유산을 남겼다.

그가 월남하게 된 것은 북한 당국의 교회 탄압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에 기인한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당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작가는 생전에 갑작스런 이별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떠나온 아내의 얼굴이 눈에 어린다고 슬퍼했다. 아내와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반 세기 이상을 독신으로 지냈다. 남한에서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됐다. 부산에 도착한 그는 영도 대한도자기 회



사회주의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사회주의 예술가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사진은 북한 공산당을 추종하는 무리가 스탈린과 김일성 초상화를 들고 소련군 진주를 환영하는 모습.

사에서 도자기 그림을 그리며 생계에 도움을 받았고, 그러면서 함께 피난 온 청년들(그들은 평양 성화신학교에서 한문·서예를 가르치던 제자들이었다)에게 먹을 것과 보금자리를 제공해주었다. 그가 돌본 청소년들이 45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작가는 자서전 <은총의 70년>에서 "그 아이들이 마치 두고 온 자식 같았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줄으로써 위안과 보람을 맛보게 된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합니다"고 술회하였다. 서울 수복 후 청파동에 살 때는 고정 가족 외에 새 가족을 받아들여 그들을 돌보며 지원했다.

그런데 김학수는 박문원만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박문원이 일본 동경제국대학 유학에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인데 비해, 김학수는 정규 교육이라고는 소학교를 졸업한 것이 고작이다. 16살 때 부친, 18살 때는 모친이 돌아가셔서 학교에 더 다닐 형편이 되지 못했다.

박문원이 자신의 능력을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해 사용한 것에 반해, 김학수는 끼니를 거르고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데 헌신했다. 교회에서 배운 것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셈이다.

우리 각자는 세계관, 즉 삶의 모든 경험들을 해석하는 줄거리나 안내지도를 지닌다. 그것은 현실과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방식과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정하기도 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지닌 세계관은 어떤 것이었을까? 먼저 박문원의 세계관은 사

회주의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노동계급을 해방함으로써 착취와 압박과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목표하며 투쟁하였다.

반면 김학수의 세계관은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두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인간과 역사와 현실을 그 분의 선하신 뜻대로 돌보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이웃 섬김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았다. 박문원과 김학수는 동시대에 살았으면서도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 사회현실을 받아들이는 관점도 달랐고 그 상이한 관점에 따라 각각 월북·월남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말과 행동에 일치를 보였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세계관이 존재하지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지닌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스스로 고안한 것임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계시의 형식을 통해 이것이 인간의 경험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다. 기독교 세계관은 김학수에게서 보듯 동료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이며, 이는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고 믿는다. 어느 철학자는 각자 훌륭한 이론을 받아들여 "그것을 인생을 항해하는 뗏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김학수에게 기독교 세계관은 인생 항로를 헤쳐가는 데 없어선 알 될 '뗏목'이었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김학수, 경동상회, 1760x910cm, 1989. 6.25 전쟁 이후 점차 옛 모습을 되찾아가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섬세한 붓질과 화사한 색상으로 담아냈다(김학수기념박물관 소장).

##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http://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 물 · 불 · 공기 · 흙... 영화 <아바타> · <엘리멘탈>과 세계관

## [세계관 수업 2] 존재의 근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고대 그리스, 신화 세계관 출발

기원전 600년부터 자연계 관심

최초 철학자, 자연 철학자 시대

현대 학문 넘어 콘텐츠 기원까지

초월적·유일신 배제, 인본주의로

성경, 존재 근원 한마디로 답해

한때 매우 인기 있었던 어린이 만화 영화 '아바타- 아양의 전설'을 아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물, 불, 공기(바람), 흙의 나라에서 각각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불의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자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인물은 모든 원소에 통달한 아바타라는 존재인데, 드디어 '아양'이라는 소년이 아바타로 등장해 세상을 구한다는 권선징악 스토리입니다.

또 '엘리멘탈'이라는 퍼사 애니메이션도 있지요. 거기서도 물, 불, 바람, 흙의 도시들이 나오는데 불의 도시 아가씨와 물의 도시 청년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모티브로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물, 불, 바람, 흙과 같은 기본 원소로 구성돼 있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올림푸스

의 신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하에는 죽음의 신 하데스, 그리고 하늘에는 가장 높은 신인 제우스와 그의 아내 헤라 등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면서, 인간 세상을 아주 복잡하게 이끌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적 세계관이 기원 전 600년 경부터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신들에게서 자연계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 지혜자들은 하늘의 별과 땅의 숲과 강물들, 그리고 화산과 태풍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자연이 어떤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물리적인 원리와 근본 요소들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최초의 철학자인 자연 철학자들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대 철학자들 중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했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공기, 흙을 네 가지 기본 원소라고 생각했고, 데모크리토스는 더 이상 조개지지 않

는 원자를,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수'를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현대의 물리학, 화학, 수학의 기본 개념뿐 아니라 우리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문화 콘텐츠의 내용도 파생됐다니, 참 놀라운 일이죠. 철학이 결코 우리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철학의 분야는 크게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론 등으로 나뉩니다. 존재의 근원은 무엇이며 이 세상에는 왜 무엇인가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고민하는 분야가 형이상학입니다. 앞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자연을 보면서 존재의 근원을 물, 불, 바람, 흙과 같은 원소들이라고, 세상의 변화무쌍한 존재들은 이 원소들 간 상호작용 결과로 생겨났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은 자신을 포함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분야가 형이상학인 것입니다.

인식론이란 그런 존재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

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사용해 논리적 추론을 통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합리주의로, 반면 감각적 경험에 인식의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하면 경험주의 전통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후대에는 이 두 가지 인식론을 통합하거나 비판하면서 서양 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론은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 그리고 미학이 이 분야에 해당합니다.

다시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에게 돌아가 보지요. 이들은 존재에 대한 문제를 이성적 논리와 삶의 경험을 토대로 추론해 보려 했



어린이 만화영화 <아바타- 아양의 전설> 중 한 장면. ©위키

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자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만, 올림푸스의 신들을 배격하면서 자연과 현세를 초월한 실질적이고 유일한 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논의에서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 유일하신 '신(神)'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철학이 수천 년간 고민하고 있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고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식론과 가치론도 그에 따라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질서, 물리적 질서, 도덕적 질서 그리고 미적 조화에 따라 인간과 만물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답은 자연 세계를 초월한 영역입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 안드로니쿠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글 가운데 자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듯한 글들을 모아서 '메타피직스(Meta-physics)'라고 명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를 초월하는'이라는 뜻이고, 피직스(Physics)는 원래 '푸지카(Fusika)- 자연학'이라는 뜻이니, 메타피직스란 자연을 초월하는 학문, 즉 형이상학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연의 일부분이므로, 이성으로는 자연을 초월하는 존재의 근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에 대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주 만물 존재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 지식은 인간의 인식론으로는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이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계속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면서 수천년을 방황하든지, 그것은 각자의 뜻이겠지만 말입니다.

정소영 미국변호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물 · 불 · 공기 · 흙 등 4원소설을 반영한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

## 어린이들 위한 성경 어드벤처 '슈퍼북'

슈퍼북 2: 다니엘의 세 친구  
CBN Inc. | CBN KOREA 역 |  
두란노 | 140쪽 | 14,000원

어린이날을 맞아, 성경 TV 애니메이션을 책으로 엮은 '슈퍼북' 두 번째 시리즈 '다니엘의 세 친구' 편이 발간됐다.

이번 슈퍼북 2권은 1권 '다윗과 골리앗' 편처럼 크리스와 조이, 로봇 기즈모가 성경 속 다니엘 3장 '다니엘과 세 친구' 현장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그들의 용감한 신앙을 직접 체험하는 내용이다.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

고는 금신상에 절하라는 바벨론 느

나님이라는 주요 스토리와 함께 남유다 멸망과 바벨론 유수, 바벨론 제국 문화 유적 이야기도 시각자료와 함께 선보인다. 이와 함께 암송 성경 구절과 기도, 퀴즈와 만들기 자료, 스티커 등으로 어린이들의 눈길을 모았다.

이윤준 기자

### 문선영의 머니토크

## 은퇴자금 30만불, 집을 페이오프 할까요, 은퇴플랜에 넣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지난 11월에 저희는 남편이 하던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팔고 이제 은퇴를 하였는데, 은퇴하자마자 한국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을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제서야 은퇴다운 은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은 67세인데, 당뇨가 심해지고 비즈니스도 더 이상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과감히 그 남녀 더 늦어지기 전에 비즈니스를 팔고 이것 저것 다 하고 나니까 정말 많지도 않은 딱 30만불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셜을 받기 시작했는데 데들이 합쳐서 3,750불이 나옵니다. 이 돈이 많지는 않은데, 만자 지금 살고 있는 디자인 \$1,800불을 내면 \$1,900정도가 되니까 뭐 아껴서 살면 우리 둘 이 못살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만약 비즈니스 팔고 남은 30만불 정도로 그냥 집을 다 페이오프를 하면 1,800불을 안내도 되니까 그러면 한달에 1,3750불이 되면 또 그것도 편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 모기지는 2.5% 이자율인데 거의 27만불 정도가 남았습니다. 30만불에서 한달에 2천불씩만 끼니 쓰면서 그것으로 모기지를 내면 앞으로 12년 정도는 생활비가 3,750불 정도가 되고, 그럼 남편도 저도 80정도가 되고, 나마지는 애들에게 집을 넘겨 줘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더 나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선영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돋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은퇴를 막상 하고 나서니 선생님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은 선생

님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의 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적용이 달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고 자세한 개별 상담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은퇴를 하시면서 금액적으로 충분한 혹은 너끈한 은퇴 인컴을 만들기 위해 저는 첫째 지출을 줄이거나 둘째 인컴을 늘리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출을 줄이는데 더 집중을 하시는데 만약 인컴을 늘리는 방법으로 똑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은퇴 인컴이 더 나오면 어떨까요? 지금 선생님의 모기지 금액은 한달에 1,800불이고, 이자율이 2.5%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2.5% 이자를 안내기 위해서 물론 그 남은 모기지 전체 27만불을 한번에 다 끌 수 수도 있지만, 만약 27만불을 가지고 7% 이상의 이자를 받아쓰신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1,800불이 14,309.50센트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면에서도 은퇴 플랜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까 또 아 생활비 계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또 새롭게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해져 있는 인컴에서 어떻게 생활비, 지출을 줄여겠죠. 자 다음은 예입니다.

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주님께서 그 세 사람과 용광로 안에서 함께 해 주셨다. 이를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찬양한다. 책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과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팔고 남으신 돈 30만불을 만약 아뉴이티에 넣고 고정 인컴으로 받아 쓰시게 된다면 매년 \$25,857불이 100세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만불을 넣고 평생 찾아 쓰는 돈은 827,412불이 되는 것이고, 선생님의 인컴은 소셜인컴 3,750불에 아뉴이티에서 나오는 \$2,154,75가 되어서 한달 인컴은 5,904.75달러가 되고, 모기지 1,800불을 매달 낸다고 해도 인컴이 오히려 4104.75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천불 가까이 인컴에서 모기지를 내도 선생님들의 은퇴가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쓰는게 되기 때문에 모기지를 깊어 나간다 해도 더 큰 돈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고, 또 이 고정 인컴 아뉴이티는 선생님께서 통닭케이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달에 꼬박꼬박 2,154.75센트가 들어간 30만불이라는 원금을 다 찾아 쓰기 전에는 자동으로 두 배인 4,309.50센트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면에서도 은퇴 플랜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5월 가정의 달 우리아이 백만장자 프로젝트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부모님은 학자금 준비 자녀들은 복리저축 세미나

5월 22일 (목), 10am

CONTACT : 626-827-9599 Email: symoonmoneytalk@gmail.com  
3435 Wilshire Blvd., 14FL, LA, CA, 118763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는 것만을 보통 생각하시지만, 정말 이자율 저자와 함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셈을 계산하고 롱텀 투자에 상황에서 은퇴 자금 30만불을 모기지를 전부 페어 헤택까지도 볼 수 있는 플랜을 생각해 시민집 모기지를 다 페이오프하는 방법이 절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또 다른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기 때 문에 선생님 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상담 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이었습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 가정의 달 특선

# KISEIDO EYE NOON EY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청정 열매인 마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213.384.3333

[www.kiseidousa.com](http://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